



윤형(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지혜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지식은 “사물에 관한 명료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양자는 언뜻 보기에 비슷하기도 하면서 차이점도 있다. 사회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모두 필요할 것이다.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나 고 묻는다면 아마 지혜를 꼽을 것이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고대 희랍과 로마 등 고대 세계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었던 정신현상으로서 생활에 대한 지식을 가리

키는데 일종의 삶의 기술을 의미한다.<sup>1</sup>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삶과 삼라만상이 담겨있는 우주를 관찰한 결과가 바로 지혜이다. 즉 천지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혜란 삶의 질서에 대한 올바른 앎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sup>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가 있다. 즉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그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결과도 수반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만물의 흐름에 내재되어 있는 원천적인 질서에 대해 고대 수메르에서는 메(ME)<sup>3</sup>라고 불렀고, 이집트에서는 마아트(Maat<sup>4</sup>, 질서의 여신)라고 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성서에서 ‘공의 또는 정의’로 번역되는 **קְדוּשָׁה**(즈다카/공의)<sup>5</sup>로 불렀다.

한편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속적인 지혜를 신학화시켰는데, 바로 야훼 경외이다. 이점이 이스라엘의 지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이다.<sup>6</sup>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그를 올바르게 신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온갖 혼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주관하며 그 안에 담긴 삶의 질서들을 모색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의 인생길이 성공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sup>7</sup>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권선징악적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6), 329.

2 Detlef Dieckmann, Silke Petersen, *Weisheit*, in: *Sozialgeschichtliches Wörterbuch zur Bibel*, Frank Crüsemann(Hg.) u.a.,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9), 641. 이 지혜는 잠언에 나오는 명철, 슬기, 지식, 분별력, 학식 등 여러 가지 유사한 단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했다.

3 H. Ringgren, *Die Religionen des Alten Ori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68.

4 율글, 49-51.

5 유선명, 「잠언의 의 개념 연구, 신학적-윤리학적-비교문화적 고찰」(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6 클라우스 베스터만, 「지혜문헌연구사」 1950-1990년까지 (소형근 옮김), (서울: 한울출판사, 2005), 38. 재인용 원제는 Claus Westermann, *Forschungsgeschichte zur Weisheitsliteratur 1950-1990* (Stuttgart: Calwer Verlag, 1991). 슈미트(H. H. Schmid)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난 잠언지혜의 역사는 진정한 지혜를 강화하는 신학화, 인격화, 그리고 조직화의 역사로 나타난다. Jutta Hausmann, *Studien zum Menschenbild der älteren Weisheit* (Tübingen: J. C. B. Mohr, 1995), 276-277.

7 E. Zenger u.a., 율글, 330.

본 논문에서 다룰 본문은 잠언으로서, 구약성서 가운데 대표적인 지혜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책들에 비해 잠언에서는 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는데 과연 그곳에서 말하는 חָכְמָה (호크마/지혜)란 무엇일까?<sup>8</sup> 잠언은 전체적으로 스승이 짧은 격언을 통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제자에게 성찰할 것을 권고한다. 잠언의 상당 부분은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궁하며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본 논문이 다룰 본문(잠 8:22-31)은 특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역사와 현실에 기초한 지상의 삶과 관련되는데 유독 이 부분만 지혜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기자는 왜 지혜를 이런 식으로 의인화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신격화시키고 있을까? 이에 본 논문은 정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분석해가면서 저자와 독자 그리고 본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sup>9</sup>

## 2. 선행 연구

지혜 문헌에 속하는 잠언 연구는 오경 및 예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연구 비중이 높지 않았다. 학계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닌데 최근에 와서 이 분야에도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후속적인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특별히 본 논문이 다룰 잠언 8장 22-31절에 대한 개별 논문은 매우 드물다. 그와 관련해

- 
- 8 레오 퍼듀, 『잠언』 현대성서주석, (배정훈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9), 25. 원제는 Leo G. Perdue, *Proverb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퍼듀는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유대교에서 사용된 이 지혜(호크마)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여섯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지식, 상상력, 훈련, 경건, 질서 그리고 도덕적 가르침으로서의 지혜 등.
- 9 J. Ebach, *Noah Die Geschichte eines Überlebenden* (Leipzig: EVA, 2001), 72. 이것은 저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독자로써 본문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층을 분석적으로 나누고(J, E, D, P) 제각기 별개로 해석하는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무엇이 이런 다양한 이야기 다발들을 하나의 그물망, 하나의 본문으로 만드는데에 대해 질문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관점 - 분석적으로 재건 가능한 이전 단계에 대한 관점과 최종 본문에 관심을 두는 관점 - 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최종본문을 이미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뒤집어서 그렇게 형성된 본문을 지금 현존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집된 가운데 전승된 본문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서는 대부분 주석에 첨가되어 다루어질 뿐이다. 어쨌든 간략하나마 본문이 속한 잠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의 연구 방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고자 한다. 과거 학자들의 잠언 연구는 주로 지혜 문헌의 기원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정 및 민중 혹은 (왕실)학교,<sup>10</sup> 또한 그 지혜문헌이 이스라엘에서 독립적으로 생성되었는가 아니면 주변 세계, 특히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놓여졌다.<sup>11</sup> 또한 잠언 1-9장과 10-31장을 둘러싸고 포로기 이전이나 이후냐 하는 시대설정 문제 그렇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세부적인 본문과 관련하여 잠언에서 지혜와 창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하면서 잠언 앞부분(잠 1-9장)은 세상 창조, 그리고 뒷부분(잠 10-31장)은 인간창조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1985년 패터 돌(P. Doll)은 잠언을 세상 창조(잠 1-9장)와 인간 창조(잠 10-29장)로 구분하면서 지혜문학의 창조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서 잠언의 세상 창조 전승이 '야훼가 창조의 주인이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2</sup> 1996년 바우만(G. Baumann)은 자신의 책을 통해 잠언 1-9장의 맥락에서 본문 잠언 8장 22-31절을 해석하면서 상술하고 있다. 그는 본문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기사를 지혜론적 관점에서 시적인 문체를 이용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창세기 1장과 욥기 38장 두 본문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sup>13</sup> 1998년 머피(Rolland E. Murphy)는 잠언서가 큰 서론(1-9장)이 붙은 모음집들의 모음집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주석을 행한다.<sup>14</sup> 그러면서 이 서론의 작성 시점을 포로기 이후로 보고 10-31장

10 클라우스 베스터만, 윌름, 30. Friedemann W. Golka, "Die israelitische Weisheitsschule oder 'Des Kaisers neue Kleider'", *Vetus Testamentum* 33 (1983), 257-270. 골카는 자신의 글에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도 학교가 없었고, 서기관 훈련은 가정전통 혹은 개별 지도 제도(tutorial system)를 통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1 클라우스 베스터만, 윌름, 35-39.

12 패터 돌, 「지혜문학을 통해 본 인간이해」(이용호 옮김),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82-83. 원제는 Peter Doll, *the Understanding of Proverbs* (Heidelberg, 1985).

13 Gerlinde Baumann, *Die Weisheitsgestalt in Proverben 1-9* (Tübingen: Mohr, 1996).

14 롤랜드 머피, 「잠언」 WBC, (서울: 솔로몬, 2008), 109. 원제는 Rolland E. Murphy, *Proverbs*,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의 모음집들은 포로기 이전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잠언 8장의 적절한 배경을 낯선 여인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그리고 2002년 장일선은 자신의 책 '삶의 위한 지혜'에서 외간 여자(7장)와 지혜 여인(8장)을 비교하면서 이 지혜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 과정의 증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혜 여인의 이런 권위를 인간이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5</sup> 2007년 이환진은 아람어 아히카르 이야기와 잠언 8장 22-31절에 나온 지혜와의 유사성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sup>16</sup> 즉 아람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혜가 신적 존재로서 신들과 인간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마틴 로이엔베르거(M. Leuenberger)는 욥기 28장, 잠언 8장 22-31절, 집회서 24장, 예녹서 42장,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전승사적 관점에서 지혜의 발전상을 서술하고 있다.<sup>17</sup> 2009년 김정우는 그의 논문에서 잠언 8장 22-31절에 대한 과거의 번역본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번역을 시도하여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을 찾아내고 히브리 우주관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려는 시도를 한다.<sup>18</sup>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8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חָכְמָה(카나/낱다)동사와 חִכְמָה(아몬/창조자)이란 낱말에 대해 '낱다'와 '창조자'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그리고 2017년 얀 디트리히(J. Dietrich)는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잠언 8장 30절을 고찰하는 논문을 발표했다.<sup>19</sup> 여기서 그는 악카드어 움마누(ummānu)에 근거하여 '아몬'이란 인격화된 지혜를 기존의 번역과는 다르게 마스터

15 장일선, 「삶을 위한 지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6 이환진, "아람어 아히카르 이야기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과 잠언의 창조 모티브", 「성경원문연구」 21집 (2007년 10월), 34-52.

17 Martin Leuenberger, "Die personifizierte Weisheit vorweltlichen Ursprungs von Hi 28 bis Joh 1, Ein traditionsgeschichtlicher Strang zwischen den Testament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0 (2008), 366-386.

18 김정우, "잠언 8장 22-31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4집 (2009년 4월), 7-33.

19 Jan Dietrich, "Die Weisheit bei Gott, Proverbien 8:30 aus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9-4 (2017), 583-599.

(master), 즉 최고의 지혜적 권위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는 본문에 나오는 지혜를 대체로 역사적 혹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런 견해들을 아우르면서 기자가 지혜를 왜 특별히 창조와 관련시켜 서술했는지 그 이유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특별히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본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독자들에게 지혜를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 3. 본문 분석

#### 1) 위치와 구조

본문이 속한 잠언 1-9장은 본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며 거기에 10개의 가르침과 여성 지혜를 주제로 하는 네 개의 교훈시들이 모여 있다. 특별히 7장과 대조되는 8장에 와서는 먼저 그 지혜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지혜가 사람의 생사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자들은 본문을 나누는 과정에서 강조점에 따라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있다.<sup>20</sup> 본 논문에서는 본문을 지혜와 창조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단락 구분과 관련하여 8장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 과정이 매우 갑작스럽다.<sup>21</sup> 앞부분에서는 지혜의 무대가 역사와 현실인데 비하여 22절부터는 시간이 갑자기 창조 이

20 Gerlinde Baumann, *Die Weisheitsgestalt in Proverbien 1-9* (Tübingen: Mohr, 1996), 114f. 알레티(Alletti)는 27절에서 지혜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보아 두 단락(22-26/27-31)으로 나눈다. 마인홀드(A. Meinhold)는 내용적으로 지혜의 수동성(22-26)과 지혜의 현존(27-30a), 그리고 지혜의 능동성(30b-31)의 세 단락으로 나눈다. 그리고 양식적으로는 22-26절에 나오는 시간 관련 전치사들, 그리고 27-30a에서 나오는 3(셋/때)라는 전치사, 마지막으로 30b-31 절에의 교차 대구 등 세 단락으로 나눈다. 이에 대해 바우만은 앞부분을 세분화하여 서론(22-23), 지혜의 창조(24-26), 지혜의 현존(27-29) 그리고 지혜의 즐거움(30-31) 네 단락으로 나눈다.

21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원래는 독립적인 글이었는데 나중에 편집적인 차원에서 삽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70인역(LXX)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21절 마지막에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있다.<sup>22</sup> 그리고 32절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감으로써 단락이 구분된다. 무엇보다 본문은 이집트 지혜문학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지혜전승을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으로 바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sup>23</sup> 하지만 구약성서 맥락에서 보면 본문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사를 빌려온다는 점에서 창세기 전승을 지혜문학적으로 각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본문은 잠언 여타 본문에 비해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에 필자는 기자 혹은 편집자가 지혜를 특별히 창조와 연결시켰을 때 이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 부분을 서술 혹은 첨가했다고 보아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문을 발췌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 2) 지혜의 시간성(8:22-23)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지혜는 땅에, 즉 역사와 현실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sup>24</sup> 그런데 지금까지의 서술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듯, 무엇보다 독자의 읽기를 방해하듯이 지혜의 자리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저자는 왜 이런 식으로 본문을 기록한 것일까? 아니면 편집자는 왜 이 자료를 이곳에다 삽입시켜놓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저자 혹은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내용은 창세기를 본뜨듯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혜의 정체성을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다.

첫 문장 8장 22절은 히브리어 문장(MT/마소라 텍스트) 어순에 따라 “야훼께서 그의 행위의 시작<sup>25</sup>, 일찍이 그가 일하기전에 나를 가졌도다”로 사역할 수 있

22 김정우, 「잠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97.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영원전의 일을 기억하고 말하리라.’ 아마도 이것은 70인역 번역자의 첨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 G. von Rad, *Weisheit i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0), 199-200.

24 Magne Sæbo, *Sprüche*,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130.

25 시리아어에는 전치사 𐤀(브/에)가 붙어 있다.

다. 이후 본문들(23-31절)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역을 하였다.

이 절은 지혜와 관련하여 독특한 내용이 들어있는 단락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전체적인 진술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지혜의 출현 시기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행위시작 이전, 즉 일하기 전이다.<sup>26</sup> 여기서  $\text{הָלַךְ}$ (데렉/행위)과  $\text{עָלָה}$ (파알/일하다)은 의미론적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text{רֵאשִׁית}$ (레쉬트/시작)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히브리어 낱말( $\text{בְּרֵאשִׁית}$ /브레쉬트/처음)과 동일하다. 즉 이것은 독자에게 창세기를 염두에 두라는 저자의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브레쉬트’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지혜의 존재 시점과 관련하여 초 시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절에서 그 의미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낱말은 바로  $\text{קָנָה}$ (카나/가졌다)라는 동사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혜의 독립성 또는 피조성이 결정된다.<sup>27</sup> 이 동사는 구매(to buy), 소유(to own), 획득(to acquire), 출산(to beget), 창조(to create)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한 어의를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의미를 수용하여 해석할 것인가는 독자의 신학적 선호도에 달려있다. 고대 역본들, 즉 아퀼라(Aquila), 심마쿠스(Symmachus), 테오도시온(Theodotion), 불가타와 현대의 여러 번역본들(루터 성서, 킹 제임스역, NASB, 개역성서)은 ‘소유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다.<sup>28</sup> 이것은 후천적으로 무언가를 취득하는 이미지를 지닌 ‘얻다, 획득하다’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면 지혜는 이미 창조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창조 질서 바깥에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잠언 8장 문맥에서 보면 ‘출생(낳다)’

26 윤형,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재고찰”,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17-143. 창조기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노동)을 했다고 말한다(창 2:2-3).

27 Richard J. Clifford, *Proverb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98-99. 4세기 경 초기 교회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 받은 아리우스(260-336년 경)가 이 번역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의 피조성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아리우스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잠언 8장 22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종속성을 주장하였다.

28 G. von Rad, *Wisdom in Israel trans.* James D. Martin, (London: SCM Press, 1972), 151. 김정우, *윳골* (2007), 301-302.



이라는 의미도 선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24절과 25절에서도 출생 모티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참고, 민 11:12; 신 32:6). 특히 30절에 나오는 **יָמֵם**(아몬)이란 낱말을 유아(infant)로 본다면 ‘낳다’라는 의미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논의를 살펴본 결과 기자가 논란의 여지 가능성이 있는 출생 모티브를 굳이 사용한 것은 지혜의 존재 시점을 불가불 나타내기 위한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sup>29</sup>

이어서 8장 23절은 22절을 진전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사역). “영원 전부터 나는 세움을 받았는데, 일찍이 땅이 있기 전부터라.”

여기서는 22절의 ‘가졌다’라는 낱말을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로 의미를 발전시키고 있고, ‘일하기 전’이라는 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이 생기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의미를 풀어서 파악해보면, 언젠인지 모르겠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때는 땅이 생기기 전부터라는 것이다. 이것은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을 연상케 한다(창 1:9-10). 여기서 지혜 출현의 시간을 알려주는 세 개의 시간 부사(영원 전부터, 일찍이, 있기 전부터)는 모두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말에 연결된다. 히브리어 본문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앞의 낱말(영원 전부터)과 뒤의 낱말(땅이 있기 전부터)이 ‘세움을 받았다’는 가운데 낱말을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한편 22절에 나온 카나 동사처럼 **יָמַם**(나사크/세우다)동사 또한 번역과 해석이 쉽지 않다. 세우다란 의미는 통상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관식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참고, 시 2:6-7).<sup>30</sup> 70

29 김정우, 윗글(2009), 12. 재인용. 논란이 되는 카나 동사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민영진은 한 낱말이 갖는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 함축적 의미(connotative meaning), 비유적 의미(figurative meaning)로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다. 즉 우리가 ‘창조하다’, ‘낳다’, ‘소유하다’라고 번역할 때 그것은 사실에 대한 묘사(지시적 의미)라기보다는 비유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30 김정우 윗글(2007), 305. 이에 대해 김정우는 이 동사를 (베 또는 피륙)을 짜다(weave), 또는 형성하다(shape)를 가리키는 **יָמַם**(사카크)동사의 니팔형(nif.)으로 해석을 시도한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짜고 지어서 모습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역(LXX)이 이런 의미(to establish)로 번역하고 있다.

저자는 이 단락에서 자기가 지금 역설하고 있는 지혜가 단순히 세상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 한다. 즉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자(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람이 지혜를 추구해서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애당초 그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혜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창조의 시작, 더 나아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단락은 시간적으로 지혜의 인간에 대한 태곳적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런 시간성을 통해 저자는 지혜의 역사화를 도모하고 있다.<sup>31</sup>

### 3) 지혜의 공간성(8:24-26)

앞 단락이 지혜의 무형의 시간적 기원에 대해 말했다면 그것이 유형의 공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저자는 스승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동했다는데, 즉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에 대해 다음 단락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창조물과 관계가 있다. 앞 단락에서는 ‘**מִן**(민/부터/from)’ 혹은 ‘**בְּרֵאשִׁית**(케템/이전/before)’이라는 전치사 혹은 부사가 나타나는 반면, 이 단락에서는 전치사 ‘**בְּ**(때/...때)’가 자주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혜의 모습이 한 단계 구체화된다. 말하자면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차원이 아닌 실재성의 차원에서 지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 순서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즉 가장 깊은 바다에서 지면의 샘으로, 그다음에 산과 언덕에서 땅과 들로 이어지고 있다.

8장 24절은 피조물 가운데 우선 물에 대해 언급한다(사역). “태고의 바다들이 없었을 때 나는 생겨났는데, 물이 많은 샘들이 없었을 때이라.”

31 Magne Sæbo, *윗글*, 131.

이 절에서 눈에 띄는 낱말은 태고의 바다, 즉 תְּהוֹמֹת(트흠)인데 이것 또한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게 된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트흠<sup>32</sup>과 지혜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22절, 23절과 문장 형식이 유사하다. 말하자면 상반절이 전체적인 모습을 서술한다면 하반절은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면 트흠은 물이 많은 샘들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한편 ‘생겨났다’라는 동사 נִחַן(힐)은 일반적으로 산모의 고통을 가리킨다(사 13:8; 23:4; 45:10; 51:2).<sup>33</sup> 이 절에서는 지혜의 출현 시기가 태고 바다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장 25절은 깊은 곳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사역). “산들이 잠기기 이전에, 언덕들이 이전에 나는 생겨났다.”

앞 절에서는 깊은 곳을 상징하는 깊음(트흠)이 나온 반면에 이 절에서는 높은 곳을 가리키는 산들과 언덕들이 나오는 대조적인 점이 부각된다. טָבַע(타바/잠긴다/to be sunk)라는 낱말이 주의를 끄는데 개역에서는 ‘세우심’으로 번역이 되어있다. 이것은 산의 뿌리가 바다 속에 심겨 있는 이미지를 부여한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산의 기초가 바다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다(욘 2:7).<sup>34</sup> 이렇게 보면 산들은 땅이 형성될 때 가장 오래된 것이다(시 90:2). 바로 이어지는 언덕은 산과 대구를 이루면서 높다는 인상을 준다. נִחַחֵן(홀라르티/생겨났다)라는 낱말이 24절과 25절에서 반복되면서 두 절의 밀접한 연관성을 말해준다.

32 트흠은 일종의 지하 세계(Unterwelt)를 표상하는 낱말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늘의 피조물이고, 이에 반해 외간 여인은 지하 세계에 근거를 둔 반대 표상이다. 참고, Gerlinde Baumann, 윗글, 128.

33 윗글, 141. 이 동사 또한 지혜의 출현을 하나님의 출산으로 표현하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34 김정우, 윗글(2007), 307.

이제 8장 26절에서는 무대가 땅으로 올라온다(사역). “그가 땅과 들 그리고 세상 진토의 근원도 만들지 않았을 때까지.”

이 절에서는 땅과 들 그리고 세상 진토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לְבַיִת/테벨)을 가리킨다. 세상 진토의 근원에서 ‘근원’이라는 낱말은 머리(שָׂרֵף/로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 『표준새번역』은 이것을 ‘세상의 첫 흙덩이’로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있다. 이렇게 22, 23, 26절에서 머리, 기원이란 히브리어 낱말(로쉬)을 사용함으로써 지혜가 다른 무엇보다 앞선 우두머리적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앞 단락과 마찬가지로 이 단락도 지혜의 기원에 대해 말해주는데 전자가 어렴풋이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후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서 야훼가 일하기 전 또는 땅이 생기기 전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단락에서 말하는 바다, 샘들, 산들, 언덕들, 땅과 들 그리고 세상 진토들이 형성되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 단락은 지혜의 기원에 있어 창조와 관련하여 시간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단락은 그 기원에 대한 공간성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두 단락은 지혜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 또는 편집자는 이렇게 창조 모티브를 통해 지혜의 기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제자(독자)의 시야를 최대한 넓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 4) 지혜의 현존(8:27-29)

이 단락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지혜가 실제 창조 과정에 입회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해 알고 있는 독자에게 의아심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옆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독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과감하게 이런 주장을 편다. 더 나아가 지혜의 의인화를 넘어 신격화에 이른다.

왜 그랬을까? 이 단락은 히브리어 전치사 **בְּ**(**ב**/...할 때)가 각 절에서 두 번씩 모두 여섯 번 반복되는데 매우 수사적이다. 저자는 이것을 통해 지혜가 하나님 이 창조 사역을 할 때 현존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바로 앞 단락에서는 피조물의 방향이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sup>35</sup> 즉 하늘과 궁창에서 구름과 샘들로, 그런 다음 바다와 해안 그리고 땅의 기초로 내려오고 있다. 이 또한 기자가 지혜의 이상적인 차원을 현실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담긴 수사적 표현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늘을 세우는 작업 이외에 나머지 네 개의 작업은 물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물이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8장 27절은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사역과정에 대해 말해준다(사역). “그가 하늘을 세울 때 거기에 내가 있었는데, 원시 바다의 표면에 궁창을 두르실 때 이라.”

지금까지 지혜는 베일에 가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혜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 앞 단락에서 언급한 피조물의 창조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앞 단락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 강한 반면 이 단락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이 강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혜는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에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창조활동에 동참한다. 제일 먼저 하늘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קָוָה**(**ק**/세우다, 고정하다)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אֲרָץ**(후구/궁창)란 낱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창세기 1장 7절의 표현대로 하늘과 물의 경계를 만드는 궁창의 수평선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그리고 **אֲנִי אֶהְיֶה**(**א**나니/내가 거기에)라는 표

35 Gerlinde Baumann, *빛글*, 125

36 윤형, *빛글*, 124-126. John A. Kitchen, *Proverbs* (Ross-Shire: Mentor, 2006), 192. 하나님이 저 멀리, 확실하게 정할 수 없는 지점에 물의 경계선을 놓았든지 아니면 수평선을 가리킬 수 있다. 참고, C. Westermann, *Genesis BK 1/1* (Neukirchen-Vluy: Neukirchener, 1999), 162-163.

현은 지혜 또한 그 상황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장 28절은 물의 생성과정에 대해 말해준다(사역). “그가 위로부터 구름들을 강화시켰을 때, 원시 바다의 샘들을 강하게 할 때이다.”

이제 하늘과 바다의 경계로부터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깊은 바다(트흠)로 무대가 옮겨진다. 여기서  $\text{קִרְבָּנִים}$ (쉬하킴/구름)의 어근은  $\text{קָרַב}$ (샤하크)로서 묻지르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따라서 구름은 가는 먼지를 가리킨다. 오늘날의 기상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비구름을 의미한다(잠 3:20). 한편 ‘강화시킨다’는 뉘앙스(nuance)의 단서는 히브리어 본문(BHS) 난외주기의 독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칠십인역, 시리아역, 그리고 라틴역(불가타)에서는  $\text{אָזַר}$ (아자즈/be strong)동사의 피엘(piel/강의형) 부정사( $\text{אֲזַרְבָּ}$ /브아즈조/강하게 하다)로 읽고 있다. 이것을 뒷부분과 연결시키면 구름들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그 결과 비가 와서 바다의 샘들이 강하게 넘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 지혜가 입회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8장 2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물의 통제에 대해 말해준다(사역). “그가 바다의 한계를 정했을 때에 물들은 그의 명령들을 어기지 못했는데, 그가 땅의 기초를 정했을 때이다.”

이제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거주지로 내려온다.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는 것은 그 바다에게 한계 또는 법(statutes/ $\text{חֻקִּים}$ /후키)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난폭할 가능성이 많은 바다의 물결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경고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욥 38:8-11).<sup>37</sup> 땅의 기초는 산

37 허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 욥기 연구』 (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16), 263-265. 욥기 38장 8-11절에서 바다

의 뿌리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가리킨다. 지혜의 현존에 대해 말하는 본 단락은 수사학적으로 27절과 29절에 쓰인 *יָרַח*(후코/그가 정하다)라는 낱말에 의해 확실히 구분된다.

이렇게 본 단락은 세상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지혜가 창조라는 실제 활동 가운데에도 입회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지혜와 창조의 역학적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저자는 독자의 의아심을 무릅쓰며 지혜 자체가 창조주 반열에 있음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것은 본문을 읽는 독자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혜에 대한 패러다임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한다. 즉 지혜가 사람보다 높고 크다는 것이다.

### 5) 지혜의 역할과 기능(8:30-31)

마지막 단락에서 지혜와 창조의 역학적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된다. 즉 지혜의 창조 사역 입회를 넘어 창조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더 극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도 나타난다.

8장 30절은 ‘옆’과 ‘앞’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여 지혜와 창조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묘사한다(사역). “그리고 나는 그의 옆에서 장인(아몬)이 되어 날마다 기뻐하였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여기서 가장 난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심하게 갈릴 정도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 *אָמֵן*(아몬)이란 낱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sup>38</sup>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일리가 있다.<sup>39</sup> 첫째는 장인(artisan/렘 52:15)이란 의미인

---

는 혼돈의 힘으로서 창조주와 맞먹는 적수가 아니라 커다란 갓난 아이 같은 모습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나안 신화에서 통상 바다는 ‘얌(Yamm)’신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고 지상을 지배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싸우는 존재이다. 이에 얌 신은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화신이었다.

38 G. von Rad, *Weisheit in Israel*, 198. 폰라드는 본문 비평만으로는 이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낱말 이면에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기에 어느 하나만으로 축소 왜곡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39 Gerlinde Baumann, *릿글*, 131-138.

데 고대 역본들, 고대 문헌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한다. 앞에 나온 여러 단락에서 보았듯이 본문은 창조와 매우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낱말을 장인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sup>40</sup> 둘째는 유아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본문에서 출산 모티브(22, 24절)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자들(Baumann, Perdue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셋째는 신실함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아몬이란 단어의 어근(יָמַן)을 부정사 절대형으로 수용할 경우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 지혜의 친근성을 나타낸다.<sup>41</sup> 최근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견해를 선호하는데, 필자는 이 중에서 첫째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혜가 창조 과정에서 그에 참여할 능력 및 인식이 전혀 없는 유아(두 번째 견해) 또는 어떤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성실한 수동적인 관찰자(세 번째 견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별 영향력이 없는 지혜와 정작 힘이 필요한 창조의 역학적 관계는 매우 느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도 27-29절이 야훼를 신적인 건축가로 묘사하고 있다(참고, 지혜서 7:22; 8:6; 14:2).<sup>42</sup> 클리포드(R. J. Clifford) 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근거로 지혜의 성숙성(adultness)을 주장한다.<sup>43</sup> 이밖에 김정우는 아몬을 상태의 대격(accusative of state)으로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해석한다.<sup>44</sup>

마지막 8장 31절은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던 지혜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사역).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세상 거처에 있고, 나의 기쁨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다.”<sup>45</sup>

40 Magne Sæbo, 윗글, 134.

41 JPS(Jewish Publication Society) 히브리어-영어 성경(TANAKH)은 아몬을 confidant(믿을만한 사람)로 번역하고 있다.

42 Kathleen A. Farmer, *Who knows What is Good?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Proverbs and Ecclesiastes* (Edinburgh: The Handsel Press Ltd, 1991), 55.

43 Richard J. Clifford, 윗글, 100.

44 김정우, 윗글(2009), 25, 28. 즉 아몬을 바로 앞에 위치한 전치사 לְ(에/앞)에 붙은 삼인칭 접미사 י(오/그의)와 동격으로 보는 것이다.

45 이환진, 윗글, 43. 아히카르 이야기에도 지혜가 신들과 인간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내용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과 지혜가 창조 활동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마지막 절에서 눈에 띄는 점은 אָדָם(아담/사람)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 창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창 1:26-28). 거처(בַּיִת/테벨)라는 표현이 매우 압축적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 가운데서 특히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sup>46</sup> 그런데 그곳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창 2:8-14).<sup>47</sup>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모든 생태계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과 조화를 이룬다(욥 38:7).<sup>48</sup>

마지막 단락에서는 창조 과정에서 행한 지혜의 역할을 ‘장인’이라는 낱말로 요약해주고 있다. 실제로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은 마치 건축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그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에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가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양자 사이에서 매개 기능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지혜의 관계적인 정체성이 보다 분명해졌다.

#### 4. 지혜와 창조의 역학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어 본문(BHS)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관찰하였는데, 그렇다면 본문은 이런 지혜의 신격화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지금까지 수행한 본문 분석에 기초하여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지혜가 인간 및 피조

46 김정우, *윗글*(2009), 27. 김정우는 이 거주지를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표현하는 기법인 제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가운데서 특히 ‘사람들이 거주할 곳’을 기뻐하였다는 것은 주님의 창조가 특별히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47 아담을 지은 후 하나님은 그에게 배수가 잘되고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한 에덴동산을 만들어준다. אֶדֶן(에덴)이란 말은 기쁨을 의미한다.

48 Magne Sæbo, *윗글*, 133. 이종근, “참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216.

세계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즉 지혜의 시간-공간적인 기원이다. 따라서 사람이 후천적으로 경험 및 공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선형적으로 먼저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따라서 본문에 따르면 사람이 올바르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그 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다.<sup>49</sup>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정말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지혜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것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표현한다(잠 1:7; 욥 28:28). 둘째, 지혜의 위치와 관련하여 그것이 하나님과 피조 세계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up>50</sup> 그러니까 이 지혜가 단순히 사람에게 필요한 수동적이며 부차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51</sup> 이것은 사물과 같은 객체 수준에 머물러 있던 지혜의 수준을 매우 격상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지혜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지혜가 생명과 관계된다는 점을 알리려는데 있다. 왜냐하면 지혜가 개입된 창조는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보듯이 그 자체가 생명 창조 행위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비록 인간 창조에 대해 언급이 없지만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본문은 대부분 인간의 거주지를 둘러싼 생태계의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은 마지막 날 창조되는데 본문 또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람의 아들들

49 다니엘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개론」 (강성열 옮김), (교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354-359. 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의라고 말할 수 있다. 원제는 Daniel J. Estes,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참고, 유선명, 윗글, 271. 저자는 지혜와 공의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로움은 의인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체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능이 바로 분별력이다. 잠언은 이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지시대상이 같고 기능적으로도 동등한 하람(현인)과 차디크(의인)을 단어 쌍으로 사용한다.”

50 Gerlinde Baumann, 윗글, 151.

51 O'Connor, Kathleen M., *The Wisdom Literature*. Message of Biblical Spirituality 5, (Wilmington: Michael Glazier, 1988), 68.

에 대해 언급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가 사람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잠 3:18). 그래서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지혜는 그것을 얻고 잃는 것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잠 8:35-36). 이처럼 본문은 지혜의 인격화 및 신격화를 통해 지혜의 선재성과 중보성 그리고 생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 5. 확장된 본문의 의도

본 논문의 잠언 본문(잠 8:22-31)은 통상적인 지혜를 찬상적인 창조와 연결 시키면서 그 불균형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냈다. 유대적인 지혜 전승(집회서 24장, 예녹서 42장, 솔로몬의 지혜서 8장 등)<sup>52</sup> 혹은 종교사적인 담론들이 그에 속한다. 그러나 본문은 저자와 유대 공동체내의 독자들의 해석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해석학적으로 본문은 저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후 본문은 독자의 관점에 따른 해석을 통해 다양한 전승과 담론을 만들어낸다. 과연 그 본문은 어디까지 가야 궁극적으로 확장된 해석에 도달할 수 있을까?<sup>53</sup>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새 정경은 현재까지 본문의 의도를 최대한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갇혀 있던 구약을 진전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말이 되게끔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54</sup> 이런 점에서 구약의 지혜를 그리스도와 연

52 제임스 L. 크렌쇼, 「구약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37-259. 원제는 James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1). 크렌쇼는 정경 이외에 솔로몬의 지혜서, 제1에스드라서, 비록서, 위경 등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유대적인 지혜 전승을 소개한다.

53 프레드릭 C. 프루스너/존 H. 헤이스, 「구약성서 신학사」 (장일선 옮김), (서울: 나눔사, 1999), 196. 원제는 Frederick C. Prussner/John H. Hayes,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and Development*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5).

54 장일선, 윌클, 269-271. 트램퍼 롱맨 3세,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전의우 옮김), (서울: IVP, 2005년). 151. 원제는 Tremper, Longman III, *How to read Proverb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2).

결시키는 해석은 베일에 가려 희미한 상태에 있었던 본문의 의도를 최대한 끌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55</sup> 왜냐하면 신약의 다양한 지혜 전승이 잠언에서 끌어낸 지혜와 창조의 역학적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요 1:3; 골 1:15). 이에 잠언 기자가 지혜를 과감하게 신격화시켰던 것처럼, 바울 역시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성서에 따르면 유대인과 희랍인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물음을 제기하는 두 가지 상이한 방법을 대표한다. 그 하나의 방법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찾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신에게로 인도하는 심오한 세계 인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제각기 다른 관점(유대인은 모세 또는 희랍인은 철학)에 선 양자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수용할 수 없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거리낌 그 자체이고, 희랍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실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전 1:23). 게다가 후자는 이 지혜를 인간의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했듯이 지혜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었고 창조자의 반열에 서 있다.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선형적인 지혜가 후순위적인 인간에게 다가와야 논리적이 된다(요 1:11). 따라서 구약 지혜 전승 흐름에 서 있는<sup>56</sup> 바울은 본문의 의도를 최대한 확장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독자들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55 Martin Leuenberger, *훗글*, 385.

56 천사무엘, 「구약 지혜 전승과 신약성서」, 『구약논단』 18집 (2005년 8월), 132-135. 저자는 초대교회기독론의 형성에 있어 구약성서와 신구약 중간 시대의 지혜문학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 개념이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안근조, “잠언의 ‘낮선 여자’ 경계를 통해 본 율법과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논단』 73집 (2019년 9월), 90. 학계에서는 구약성서의 문학 전통에서 지혜 전승의 흐름이 처음부터 율법 전승과 더불어 전개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더 나아가 잠언의 낮선 여자 경계가 두 전승을 통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기를 기원전 2세기경에서 기원전 400년경으로 앞당긴다.

## 6. 나가는 말

우리는 잠언 8장 22-31절의 분석을 통해 지혜가 창조와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을 뛰어넘는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지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세상 창조 과정에 지혜가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지혜라는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흥미로운 언급인데, 말하자면 지혜가 사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격(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자주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고 표현하고 있다. 본문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지혜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즉 사람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혜가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기 원한다면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가까이 가야 한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문헌 기자들은 반복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강조한다.

## 7. 참고문헌

김정우, "잠언 8장 22-31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4집 (2009년 4월), 7-33.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7년).

다니엘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개론」 (강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원제 Estes, Daniel J.,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 롤랜드 머피, 「잠언」WBC, (박문재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원제 Muphy, Rolland E., *Proverbs*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 레오 퍼듀, 「잠언」현대성서주석, (배정훈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9). 원제 Perdue, Leo G., *Proverb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안근조, “잠언의 낯선 여자 경계를 통해 본 율법과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논단」73집 (2019년 9월), 74-101.
- 에릭 쟁어 편집, 「구약성경개론」(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원제 Zenger, Erich.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6).
-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63집 (2017년 3월), 190-233.
- 이환진, “아람어 아히카르 이야기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과 잠언의 창조 모티브”, 「성경원문연구」21집 (2007년 10월), 34-52.
- 윤 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구약논단」50집 (2013년 12월), 117-143.
- 유선명, 「잠언의 의 개념 연구」신학적-윤리학적-비교문화적 고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제임스 L. 크렌쇼, 「구약지혜문학의 이해」(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2). 원제 Crenshaw, James L.,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1).
- 장일선, 「삶을 위한 지혜. 히브리 지혜문학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년).
- 클라우스 베스터만, 「지혜문학연구사」1950-1990년까지 (소형근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2005). 원제 Westermann, Claus, *Forschungsgeschichte zur Weisheitsliteratur 1950-1990* (Stuttgart: Calwer Verlag, 1991).
- 트램퍼 롱맨 3세,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전의우 옮김), (서울: IVP,

- 2005년). 원제 Longman III, Tremper, *How to read Proverb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2).
- 패터 돌, 「지혜문학을 통해 본 인간이해」 (이용호 옮김),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원제 Doll, Peter, *the Understanding of Proverbs* (Heidelberg, 1985).
- 프레드릭 C. 프루스너/존 H. 헤이스, 「구약성서신학사」 (장일선 옮김), (서울: 나눔사, 1999). 원제 Prussner Frederick C./Hayes, John H.,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and Development*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5).
-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 율기 연구」 (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16).
- Baumann, Gerlinde, *Die Weisheitsgestalt in Proverbien 1-9* (Tübingen: Mohr, 1996).
- Clifford, Richard J., *Proverb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9).
- Dietrich, Jan, "Die Weisheit bei Gott, Proverbien 8:30 aus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9-4 (2017), 583-599.
- Farmer, Kathleen A., *Who knows What is Good?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Proverbs and Ecclesiastes* (Edinburgh: The Handsel Press Ltd, 1991).
- Golka, Friedemann W., "Die israelitische Weisheitsschule oder 'Des Kaisers neue Kleider'", *Vetus Testamentum* 33 (1983), 257-270.
- Kitchen, John A., *Proverbs* (Ross-Shire: Mentor, 2006).
- Leuenberger, Martin, "Die personifizierte Weisheit vorweltlichen Ursprungs von Hi 28 bis Joh 1, Ein traditionsgeschichtlicher Strang zwischen den Testament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0 (2008), 366-386.

- O'Connor, Kathleen M., *The Wisdom Literature*. Message of Biblical Spirituality 5 (Wilmington: Michalel Glazier, 1988).
- Ringgren, H., *Die Religionen des Alten Ori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 Sæbø, Magne, *Sprüche*,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 Von Rad, G., *Weisheit i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0).
- Von Rad G., *Wisdom in Israel trans.* James D. Martin, (London: SCM Press, 1972).
- Westermann, C., *Genesis BK I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 Whybray R. N., *The Book of Proverbs* (Leiden: E. J. Brill, 1995).



검색어

지혜

창조

야훼 경외

증보자

잠언 8:22-31

##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Wisdom and Creation in Proverbs 8:22-31

Hyung Youn

Lecturer a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Ruhr-University Bochum Dr. theo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wisdom and creation through an analysis of Proverbs 8:22-31. With a canonical approach I tried to consider the intention of the author and the tex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der. As a result, wisdom is found to be of incredible value above what we have ever thought. First, wisdom had been in existence a very long time ago. Above all, the participation of wisdom in the creation process of this world gives us extraordinary meaning. For God did not create the world alone but with a helper named wisdom next to Him. Furthermore, this wisdom plays the role of a mediator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Wisdom is, so to speak, not an object or a concept, but it has personality like human beings. So wisdom is often described in Proverbs as calling people on the stree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we should change our understanding of wisdom. The reason is that people do not own

www.kci.go.kr

wisdom, but rather it leads them. Therefore, if we want to be wise, we have to get close to it, not learn it. One step further from there, we get to find God, the source of wisdom. So the authors of wisdom literature repeatedly emphasize that “the fear of the Lord is wisdom.”

## Key Words

wisdom

creation

fear of Yahweh

mediator

Proverbs 8:22-31

- 투고일: 2019년 11월 5일
- 심사일: 2020년 1월 4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월 19일

[www.kci.go.kr](http://www.kci.go.kr)